

# 광주정신 재무장, 추락하는 민주주의·인권 다잡자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한다

## 1 프롤로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상이며 수많은 시민들의 송고한 희생은 민주주의의 자랑이 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5월 정신을 아시아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광주일보가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취재 또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난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현지 또는 타국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고 짓눌린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 덕분에 5월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에 목마른 아시아인들에게 감로수가 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광주 5월 정신이 흠뻑 퍼져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5월 정신이라는 흠뻑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퍼져나간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월 단체들은 광주인권상 제정을 통해 5월 항쟁의 모태인 민주·인권·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인권상은 올해까지 16회째를 맞는 동안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광주인권상은 5·18 기념재단이 지난 2000년부터 5·18 민주화운동의 기본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고 인류의 평화와 인권 신장, 민족분단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매년 5월 18일 시상식이 열리는 광주인권상은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공헌한 인사 또는 단체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권위도 높아졌다.

지난 2001년 수상자 스리랑카 출신인 페르난도 위원장(71·W.P.J. Basil Fernando)은 스리랑카 대법원 판사를 지냈고 1989~92년 베트남 난민구제위원회 유엔 난민고등법무관을 역임한 뒤 94년부터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시아 지역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0년부터 14개국 20명 수상

민주·평화·인권 운동 헌신

아시아 전역에 오월정신 씨 뿌려

한때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발행이 금지당했던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보’(Tempo)는 지난 2013년 부당한 권력과 부패를 고발한 점이 인정돼 특별상을 받았다.

지난 2005년 수상자인 와르다 하피즈(여·63·Wardah Hafiz)씨는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소외된 도시빈민이 스스로 보호할 단체를 조직하고, 가난한 민중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0년 수상자인 네팔 인권활동가 수실 파큐렐(64·Sushil Pakyurel)씨는 권력을 둘러싼 학살 만행 등 네팔 절대왕정의 비민주적 폭압 통치에 맞서면서 각종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

올해까지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모두 20명(특별상 2명 포함).

나라별로는 ▲인도 3명 ▲한국 2명 ▲버마 2명 ▲인도네시아 2명 ▲스리랑카 2명 ▲파키스탄·네팔·동티모르·이스라엘·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이란·태국 1명씩 등 모두 14개국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민주·인권환경이 열악한 나라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사회운동, 정치권,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광주인권상 수상을 통해 5월 정신의 의미 등을 폭 넓게 이해한 뒤 국내·외에서 5월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인권운동가나 인권에 대해 관심이 남다른 재목들로 국내에서 민주·인권·평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와르다 하피즈씨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은 산업화 등 경제·정치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5월 정신이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염원하는 아시아인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희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달 24일 오후 1시 인도네시아 꼬따(Kota) 무아라 바루(Muara baru) 빈민촌 마을 회관에서 인도네시아 NGO단체인 도시빈민협의회(UPC·Urban Poor Consortium) 사무총장인 와르다 하피즈(여·63)씨와 주민들이 개인 위생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도네시아=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진남호국문화계승

## 제49회 여수진남 거북선축제

The 49th Yeosu Jinnam Turtle Ship Festival

2015.  
**5.3(일) ▶ 5(화)**  
 이순신광장 및 시내 일원

**주요 행사**  
 고유제 / 통제영 길놀이 / 전라좌수영 입방군 점고 독제 / 소동졸놀이 / 용졸다리기 / 매구 경연대회 / 대동한마당 / 우리는 전라좌수군의 후예다! / 유적지 순례 / 거북선의 고향 여수! / 주변상가 그랜드 세일 / 체험행사 / 부대행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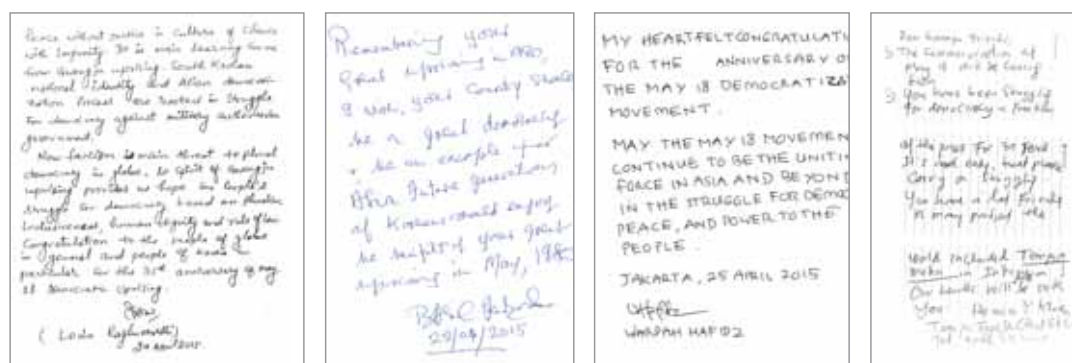
행사 안내 : [www.jinnamje.com](http://www.jinnamje.com)  
 행사 문의 : 061)664-4250

·주최 : 여수시·(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주관 : 제49회 여수진남거북선축제위원회

##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보내온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 메시지

### 한국 미래세대 80년 위대한 저항 혜택 즐길 수 있길

### 민주·평화·주권 위한 투쟁 아시아의 힘 결집할 것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5·18 민주항쟁 35주년을 기념하는 자필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왼쪽부터 레닌 라구와니쉬·바실 페르난도·와르다 하피즈·헤르민의 자필 메시지.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올해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라는 자필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들은 5·18이 갈등·분열·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매개체가 되길 희망했다. 다만 5·18의 의미가 일부 세력에 의해 퇴색·폐쇄되는 부분에 대해선 광주시민들이 송고한 5월 정신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풀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응원했다.

인도 인권운동가 레닌 라구와니쉬씨는 “정의 없는 평화는 벌을 받지 않는 침묵의 문화다. 이는 5·18이 주는 주된 의미다. 한국의 정체성과 아시아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선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파시즘은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의 위협이 되고 있다. 5월 정신은 다원성·인간의 존엄성, 법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 5·18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아시아국가위원회 위원장인 바실 페르난도(W. P.J. Basil Fernando)씨는 “1980년 위대한 저항을 기억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훌륭히 정착하고 아시아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5·18은 민주화를 바라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 세대는 1980년 5월 광주시민의 위대한 저항으로 인한 혜택을

향으로 인한 혜택을 즐겨야만 한다”고 썼다.

인도네시아 시사주간지 템보 편집장 헤르민(Hermien)씨는 “광주시민들이여, 35주년 기념일이 곧 다가온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35년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광주시민들께겐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많다.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줄 바란다”고 응원했다.

5·18의 성과를 평가한 뒤 광주시민들이 한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본보기 돼주길 바라는 메시지도 있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바실 페르난도(W. P.J. Basil Fernando)씨는 “1980년 위대한 저항을 기억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훌륭히 정착하고 아시아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의 미래 세대는 1980년 5월 광주시민의 위대한 저항으로 인한 혜택을 즐겨야만 한다”고 썼다.

인도네시아 UPC 사무총장인 와르다 하피즈(Wardah Hafiz)씨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5·18은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주권을 위한 투쟁을 넘어 아시아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것이다. 5월 관련단체가 앞으로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민주·인권국가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격려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